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국, 대기업 중심 설비투자 확대 움직임

□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가용현금 규모가 증가하고 2011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대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함.

- S&P 500에 포함된 419개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현금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49% 증가한 반면 총 부채는 14%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대비 현금과 부채는 각각 10.6%, 2% 증가함.
- 대규모 감원과 비능률 사업부문 정리 등으로 미국기업의 총 수익은 전년대비 26% 증가한 1조 64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이는 지난 4년 중 최고의 실적임.
- 투자여력 증가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이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, 라틴아메리카,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확장을 구상함.
- 유리소재 업체인 코닝은 2011년 R&D 투자를 3억 달러 확대하고 중국과 태국의 공장설비에 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였으며, 엔진기업 커민스는 2,500명의 기술인력을 신규채용하기로 함.

□ 대기업들의 투자규모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도 존재하며, 기업의 업종에 따라 경기 전망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.

-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실업으로 인한 제한적 소비여력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며, 무역장벽 강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됨.
- 신흥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2011년 경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, 국내사업 위주의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를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한편 지난 12월 17일, 기업의 특정 투자에 대해 100%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감세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합의도 내년도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(Wall Street Journal, 1/3)